

# 광양시, 숲·별빛·계곡 아우르는 체류형 캠핑 인프라 확대

## 구봉산숲속·배알도별빛·금천계곡 야영장 운영... 이용 목적에 맞는 선택지 제공

광양시가 숲·별빛·계곡을 주제로 한 야영장 3곳을 운영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고 있다.

시는 구봉산숲속야영장, 배알도별빛야영장, 금천계곡야영장을 통해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 이용자부터 숙련 오토캠퍼까지 다양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야영장은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숲속 휴식형, 배알도별빛야영장은 바다·별빛 체류형, 금천계곡야영장은 계곡 힐링형 공간으로 조성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숲속 휴식과 도심 접근성 갖춘 구봉산숲속야영장

구봉산 자락에 조성된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자연 친화적 환경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도심형 야영장이다.

야영데크 28면과 트리하우스 5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월کم센터 ▲취사대 ▲손

수레 보관소 ▲무료주차장 등을 갖춰 이용 편의를 높였다.

숲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광양만이 내려다보이는 개방감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야간에는 도시 불빛이 만들어내는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캠핑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 체류시설을 더한 배알도별빛야영장

지난 3월 개장한 배알도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조성된 복합형 야영장이다.

카라반 10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총 100면 규모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샤워장·개수대·화장실·제곡장·커뮤니티센터 등 기본 시설을 갖췄다.

야영장에는 버스킹 공연장, 네트 체험 시설, 어린이 집라인, 바다분수 등 체류시설도 함께 조성돼 가족 단위 이용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낮에는 섬진강변과 해안 경관을 즐기고, 밤에는 노을과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야영장 명칭에는 지역의 인문학적 의미도 담겼다. 인근 정병곡 가옥에 보존된 운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상징성과 배알도 풍광을 반영해 '별빛야영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연 경관에 문학적 의미를 더한 공간으로, 다른 야영장과 차별성을 갖는다.

□ 자연과 가까운 금천계곡야영장

금천계곡야영장은 백운산 4대 계곡 가

운데 하나인 금천계곡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곳에 조성된 자연 밀착형 오토캠핑장이다. 계곡 물소리와 섬진강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청량한 분위기를 원하는 이용객에게 적합하다.

야영장은 데크 14면과 파쇄석 10면 등 총 24면 규모로, 관리동·주차장·개수대·화장실 등 기본 시설을 갖췄다. 과도한 시설 설치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해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100만이 찾은 봄, 3색 봄꽃의 도시 구례

전남 구례군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봄꽃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는 구례군 인구의 약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는 3월 한 달간 구례 전역에서 이어진 봄꽃 개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산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산수유꽃이 만개한 데 이어, 화엄사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일대의 홍매화, 군 전역의 벚꽃이 순차적으로 절정을 이루며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다.

구례군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인 '산수유꽃축제'와 '구례 300리 벚꽃축제', 그리고 전국 사진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 '화엄사 화엄대 콘테스트'를 연계 진행하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3월 한 달간 구례를 찾아주시는 100만 명의 관광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봄꽃 시즌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연간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4월 15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업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이 필요한 농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인증제도 ▲농약허용기준 강

## 고흥군, 15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업인 기본교육

### 농약 안전사용, 탄소중립 실천까지 맞춤형 교육 추진

화제도(PLS) 및 농약 안전사용 기술 ▲탄소중립 실천 ▲자물보호제 활용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 기간이 도래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농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

전사용 기술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최근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품질인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인증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우

## 9천여 명 신청 '나주에(愛) 배움바우처' 열기

### 무작위 추첨·영상 공개로 공정성 강화, 190여 개 교육기관 자유 선택

전남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며 '나주형 평생학습 복지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 중심 평생교육 정책인 '나주에(愛) 배움바우처' 2026년도 지원 대상자 5000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에는 총 9238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정부 바우처 6종 수혜자를 제외한 82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은 지난 3월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새롭게 개관한 나주시평생학습관 11실에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고 해당 영상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광주은행에서 '나주에(愛) 배움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

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자는 관내 190여 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나주시는 '나주에(愛) 배움바우처'를 통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나주에(愛) 배움바우처'는 시민의 학습 선택권 확대와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나주시 대표 평생교육 정책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동철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나주에(愛) 배움바우처는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며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및 인증 교육

전남 함평군이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 면적 증가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농업인 교육을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6일부터 관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최근 잔류농약 검출과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이 인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일 월야면을 시작으로 었다면, 나산면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16일까지 나머지 읍면을 순회하며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면사무소와 농업인회관 등 9개 읍면에서 진행하며,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 농가를 대

오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17일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포함한 '신규 친환경 비 재배 희망농가 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 무안군,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전면 시행

### 청렴골든벨·청렴라이브 도입... 실천 중심 청렴문화 확산

전남 무안군은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예산 집행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예방하고 청렴을 일상화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신규자, 승진자는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대면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

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함께 감질 예방 및 사례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청렴골든벨, 청렴라이브(판소리·샌드아트 등)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에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알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내가 나를 밀어붙일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날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할 것.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할 것.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할 것.  
좋은 거라면... 할 것.  
언제나 우연... 할 것.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